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9호 [루계 제2665호]

주제 110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음력 8월 1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 태양의 력사는 변함없이 흐른다



한 나라 력사에서 10년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허나 공화국은 이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나날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눈부신 기적과 전변, 놀라운 성과와 커다란 재부를 창조하여 주체조선의 지위와 존엄을 더욱더 만방에 떨쳐왔다.

###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영생은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후계자에 의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을 가로막았지만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공화국은 상승계도를 따라 즐거차게 전진하고 있다.

### 태양의 력사로

바라는 절절한 심정을 뜨겁게 읽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제시하고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공화국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신데 있다.

### 태양의 력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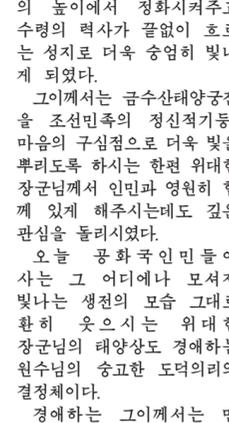
본적이 없다고, 장군님은 곧 수령님이시고 수령님은 곧 장군님이시라고 굳게 믿어온 우리 인민들이므로 장군님을 수령님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모시는데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요구와 념원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실것을 받기하시고 손수 도안까지 그려가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사소한 손색도 없이 꾸러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 태양의 력사로

경애하는 그의 고결한 충정성에 의해 금수산태양궁전은 인민들의 순결한 사상감정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정화시켜주고 수령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성지로 더욱 숭엄히 빛나게 되었다.



죽대국상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신 곳이 없어 더욱 비통해하며 목놓아울던 인민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시려고 만수대언덕과 만수대창작사,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모자이크 벽화들을 정중히 모시도록 해주시었다.

진정 고결한 충정심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친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주체의 태양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다.

### 태양의 력사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뜻깊은 시각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천명하시었다.

그이의 이 선언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길에서 단 한치의 편차도, 단 한결구의 담보도 없을 철석의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그이께서 이 나라와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의 환란한 미래에 이끌어 오신 그 길은 지난 공화국의 력사에서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어 오신 그 애국애민의 길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원수님의 한생은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져왔다.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며 존엄높고 행복인민으로 되게 해주시려는 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뜻이고 념원이었다.

이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이 땅위에 인민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변함없이 펼쳐가고 계시는분이 우리의 자애로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이다. 그이께서 지난 10년간 인민을 위해 이 땅 도처에 일떠세워주신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정적물들은 그 수를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 태양의 력사로

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현명한 투쟁방침들을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대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며 우리 겨레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셨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이 귀중한 좌우명으로 깊이 새겨져있다.

《김정은 각국 TV방송은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우리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

### 태양의 력사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인류는 멀지 않아 그것을 보게 될것이라고 천하였다.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 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위민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신다. 그이의 이 억척불변의 의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회의의 높은 열단에서 하시던 맹약에 그대로 어그러졌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결연 불발의 투지로 혁명앞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더 엄

속한 시련이 막아나서도 추호의 변심이 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속히 선서한다고 하시었다.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로 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며 공화국인민들의 존엄은 날로 높아가고 행복은 더욱더 커지고있다.

### 태양의 력사로

본사기자 주일봉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우리 조국은 참다운 인민의 조국, 민족자주의 조국이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에는 공화국의 인민적이며 자주적인 성격이 밝혀져있으며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국가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모든 활동이 철두철미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로 일관되고 있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에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의 복리증진에 아낌없이 돌려지고 인민적인 시책들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를 떠나 나라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자주는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다. 공화국은 자주를 생명으로, 국가건설의 근본초석으로 내세우고 외세의 강권과 압력을 철저히 배격하며 진보와 발전의 길

을 자랑차게 걸어왔다.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기치높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의 식, 남의 품을 반대배격하고 자기식의 발전방식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적태도를 튼튼히 다지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것을 굳건히 고수하고 공고히 하였다.

은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강권과 전횡, 간섭에 의하여 국권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굴욕적인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자주적태를 세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은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안녕을 굳건히 담보하는 강력한 국가로 존엄떨치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훌륭히 결합시키고 빛나게 옹호고수하여나가는 바로 여기에 참다운 인민의 나라, 민족자주의 국가인 공화국의 인민적이고 애국적인 성격과 그 우월성이 있으며 필승불패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 시론

### 향후 일본이 감질은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자민당총재로 당선된다는 것은 새 수상이 되기 위한 관문을 넘는데도 누가 당선될것에 따라 일본이 어떤 길로 나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예측할수 있다. 현재 현 행정개혁당당장과 전 자민당 정부조사위원장, 여성후보들인 전 총무상, 자민당 간사장대행 등 4명의 후보가 나섰다. 주목되는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모두 이전 수상 아베와 현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한것이다. 특히 아베내각에서 외상을 5년간 하면서 2015년 박근혜(정권)와 《한일위안부합

해의진출을 위한 헌법개정, 침략적인 미일동맹강화를 비롯하여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에 혈안이 되어온 이전 수상 아베와 현 정권의 뒤를 따르겠다는것을 보면 그 후보들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인가를 잘 알수 있다. 실제로 현 행정개혁당당상은 1993년 일본군성노예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한 당시 국방장관의 아들이지만 이전 아베내각에서 외상으로 발탁된 후 인건성도 사고방식도 아버지와 다르다고 떠벌이면서 당국의 역사외교정책과 반공화국적대시책에 앞장선자이다. 전 자민당 정부조사위원장은 이전 아베내각에서 외상을 5년간 하면서 2015년 박근혜(정권)와 《한일위안부합

과 현 정권에서 역사외교정책 동과 군국주의부활, 재침야망 실현을 위해 한류 단탄히 한자들도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야망에 들떠있는것들이야 향후 일본의 선택이 어떤것이 될지는 자명한것이다. 그들중에 누가 자민당총재로 되든, 또 누가 수상이 되든 일본의 사고는 여전히 20세기 초엽에 머물러있으며 인류문명계 동떨어진 섬나라로 태평양물결에 흔들리고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일본은 스스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언제 가도 섬나라의 정치난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남녘의 화진포가 전하는 겨레사랑이야기



화진포

화진포는 남강원도의 바다가 지역에는 아름다운 명소이다. 원래 이곳은 만이였었는데 모래부리에 의해 만안이 막혀서 바다자리호수가 생겨나게 되었다. 해안모래밭에는 소나무, 해당화가 퍼져있어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도 많이 찾는 여행지이다.

이 화진포지역에 일찌기 철새위인들의 겨레사랑의 기록한 발자취가 새겨져 오늘도 전해져오고 있으니 세월이 가도 겨레가 잊지 못하는 화진포의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소중한 추억은 그리움에 정비례하는 법이다. 화진포에 대한 사람들의 추억은 곧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되어 70여년전 10월의 언덕으로 이끌군 한다. 그러느라 배행된 조국땅에서 인민들 누구나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 그리도 애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위민헌신의 로고가 눈앞에 어려와 눈물이 뜨겨워지곤 하는 사람들이다.

...  
주제37(1948)년 10월 17일, 금강산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마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정리를 거쳐 고성군 화진포휴양소(당시)

를 찾으셨었다. 그이를 화진포휴양소에 모시게 된 일군들의 마음은 참으로 기뻐했다.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수령님, 조국에 개선하시어서도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돌보시느라 로고에 로고를 바치시는 수령님이시었다.

그런데 그날은 정치좋은 곳에, 그것도 다름아닌 휴양소에 모시게 되었으니 쌓이고 쌓인 그의 피로를 덜어드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일군들은 생각하였다. 하여 수령님을 위한 휴식일정계획이 짜지게 되었고 그 차비 또한 빈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짜놓은 휴식일정이 계획으로만 끝나게 될줄 어떻게 알았으랴.

휴양소에 도착하시어 휴양소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한기에 휴양상을 몇명이나 받을수 있는가를 알아보신 때로부터 수령님께서서는 잠시도 휴식할틈을 잃으시고 사람들과 담화를 이어가시던것이었다.

산간지대의 농사를 잘 짓도록 하며 부업을 해서 수입을 높일도록 해야 한다. 이 지방에

도 많고 도토리나무도 많다고 하는데 가을에 낱자를 정해놓고 지역을 떼주어 갖이나 도토리를 따게 하는것이 좋겠다. 도에서는 고등어철에 소금을 확보해두었다가 군에 보내주고 군소비조합에서는 철군 고기를 제때에 다른 지방에 공급해주어야 한다. ...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느라 시간가는줄 모르시었다.

계획된 휴식일정이 형용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와 수행성원들은 계속 시계만 들여다보며 초조해하였다.

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를 거니시면서도 수령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휴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휴양을 더 잘 보장하겠는가 하는 생각만이 자리잡고있었다.

호수가 좋다. 소나무가 우거진 모래터가 잇닿아있어 휴양생들이 보트놀이하기에 좋다. 보트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

이렇게 하나하나 이르시고나신 수령님께서서는 휴양소장에게 당부하시었다.

호수에서 오리를 기르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서 휴양생들의 부식물을 보장해주어야 한

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로동정 휴양사업이다. 고기와 남새, 물고기 등 부식물을 휴양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잘 공급해야 한다. 휴양소가까운 곳에 정거장을 옮겨고 도로도 건설해야 하겠다. ...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화진포인민들만이 아닌 해방된 조국땅의 모든 인민들이 있었고 수난받고 고생했던 그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을 안겨주시길 일념이 짙 차있었다.

이날 수령님을 위해 일군들이 짜놓은 휴식일정은 집행되지 못했지만 화진포인민들을 위한 수령님의 사업계획은 이렇게 집행되었다.

이것이 화진포가 간직하고있는 소중한 추억의 한토막이다.

그리고보면 화진포야말로 조국과 겨레를 위하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진실하고도 웅심깊은 사랑을 증명하는 증언자가 아니겠는가.

오늘도 남녘동포들은 해방후 철새위인들께서 여기 남녘의 화진포에 찾아오셨던 감각의 그날을 잊어 잊어 불멸의 사적물들을 정리 보관하고 길이길이 전해가고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날의 가슴뜨거운 겨레사랑의 전설들을 고이 간직하고 전해주는 귀중한

사적물들.

그 사적물 하나하나를 주의깊게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표시한 남조선주민들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화진포에 어린 수령님의 그 사랑의 발자취에서 겨레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여 불면불후의 로고를 바쳐오신 수령님의 한평생을 더듬어볼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공화국의 인민들만이 아니라 온 겨레를 한 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인민사랑, 겨레사랑을 오늘도 길이 전해가는 화진포.

하긴만 나라가 갈라져 북남의 겨레가 함께 이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온 겨레가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던 김일성주석의 녀민이 꽃필 통일 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것은 민족사의 법칙이다.

조선민족모두가 기쁨과 환희의 춤바다를 펼칠 감각의 그날에 력사의 땅 화진포는 북남의 우리 겨레를 따듯이 맞아줄것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원래 남강원도 화진포는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고기잡이도 하면서 생계나 겨우겨우 유지해오던 외진마을이었다. 그러다가 대륙침략전쟁에 완장이 된 일제가 명사십리에 군용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철거된 별장들을 그곳에 옮겨짓기 시작한 다음부터 화진포는 부자들의 유흥장으로, 집을 헐리우고 땅을 떼운 사람들의 거처지로 되어버렸다.

조국이 해방된 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깊은 관심속에 일제가 도망치면서 파괴해버리고간 별장들을 개건함으로써 문화휴양지로 전변되었다.

바로 이곳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도착하신것은 주제37(1948)년 8월초 어느날이었다.

그날 저녁 고성군내 일군들이 김정숙녀사를 뵈오러 찾아왔는데 그들은 더 좋은 숙소를 마련해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몹시 송구스러워하였다.

일군들의 심중을 헤아리신 녀사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 집인가고,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 살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다음날 로송술을 거니시던 녀사께서는 경치가 아주 좋다고, 이런 곳에서 휴식하고있는 휴양생들이 보드도 타고 장기도 놀게 하여야 한다고, 소나

## 어떻게든 동편역사의 동쪽편의 미션

무술로 오솔길을 많이 내어 유람에 편리하게 해야 하겠다 고 말씀하시면서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의 생각은 어떤가고 물으시었다.

그는 지금은 로력이 없애고 곤란할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조용히 웃음을 지으신 녀사께서는 그 일은 휴양생들이 하루이틀을 각각적으로 돌원되도록 정치사업을 잘하면 따로 로력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었다.

머칠후 호수가에 나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신 그이께서는 화진포에서 5리 남짓한 곳에 있는 창평리의 한 어촌마을을 찾으시고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수수한 옷차림을 하시고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녀사께 농민들과 어민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있는 문제들을 자초지종 말씀드리었다.

이날 녀사께서는 농민들과 어민들의 생활형편과 녀맹단체들의 사업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녀성들이 봉건적인습에서 벗어나 생활도 잘 꾸리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이렇듯 화진포에서 녀사가 보내신 날들에는 은금보화가 가득찬 이 땅에서 온 겨레가 남부럽지 않게 잘살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녀민이 깃들여있었다.

본사기자 김소담

사람은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회억에 산다고 한다.

세월은 가고 백발이 오는 법이어서 내 이제는 팔순이 넘은 고령인이라 왕년의 일들이 까마득히 멀어진다.

하지만 백두산녀장군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께서 통일애국의 길에서 나의 시아버님(몽양려운형)과 시누이(려연구, 려원구)들에게 기술이신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

한데하였다. 까마다 색다른 음악 한가지라도 더 대접하도록 마음쓰셨고 객지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이보저모로 원심을 기울였다.

평양에 올 적마다 어버이수령님의 맥에서 류속하면서 김정숙녀사의 후덕한 인정미에 감복하시어 아버님은 내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심정을 터놓았다. 장군님께서

고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새 조선의 령수로 신뢰하며 그이의 자주독립국가건설로선을 적극 지지하고 받든 시아버님의 당부를 따라 딸자매가 평양으로 오게 됐고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보살핌속에서 생활하며 성장하였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그때 일을 더듬으시며

가진 옷가지며 신발, 학용품과 화장품을 이르기까지 생활용품들을 모두 챙겨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질 때에는 부디 앓지 말고 공부 잘하라고, 공부 많이 하고 돌아오면 우리 함께 손잡고 부강한 조국건설을 위해 힘껏 일해보자고 하시었다.

하지만 그들이 류학을 떠나며 본 녀사의 모습이 마치 막으로 뵈은 모습이었다.

그들이 류학하는 나날 때로는 햇살이며 고추장도 보내주시며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때로는 편지를 띄우시며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라고 신칙하시며 너희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통일이 되겠지, 그때 함께 서울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었다.

우리 시아버님과 시누이들을 한식술처럼 대접주시며 각근한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도록 보살펴주시는 김정숙녀사께서는 주제38(1949)년 9월 22일 너무도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녀사께서 생전에 것처럼 가슴아파하신 민족분열은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나와 자손들은 지금도 김정숙녀사께서 우리일가에게 배부신 인덕을 잊지 못하며 녀사의 녀민인 조국통일 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전심하고있다.

김정숙녀사의 서거 72돛에 즈음하여 절절한 경모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로현숙

##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주제82(1993)년 4월 어느날 미국 워싱턴 캐리대학 고려연구소 소장인 재미교포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는 세계가 《깨어져나간 지구를 맞붙여놓는 것과 같은 사변》이라고 한 단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한 출로는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조국을 통일하자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전체 조선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는것 밖에 다른 출로는 없으며 전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고 하시었다.

주제81(1992)년 2월초 설날에 있는 일이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조국통일도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은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고려민족으로서의 녀를 지니고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고려민족으로서의 녀!

민족의 녀에 대한 고귀한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참으로 온 겨레를 한 품에 안으시고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해 모든 정력을 강구리 바치시는 민족의 어버이만이 찾아줄수 있는 정신력이었다.

고려민족의 녀으로 단결해 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은 민족의 이질성을 떠들면서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분열세력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고 북과 남, 해외의 민족분열을 이룩하려는 민족분열세력에게 나아가도록 하는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도 위대하시고 녀사님도 또한 위대한 조선의 녀걸이시다. 그분께서는 수수한 치마저고리를 입으시고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신다. 농촌에 가시면 농민들을 도와 밭일도 하시고 메물질도 물레질도 하시고 방아도 짚어주신다. 녀사님께서 지어주신 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왜놈들을 전복케 하신 백두산의 녀장군이시구나 하고 생각하니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해방직후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빨찌산전우들은 물론이고 항일혁명렬사유가족들과 각계층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 우리 시아버님을 비롯한 남조선의 정객들말고도 외국의 벗들도 있었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맥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많은 손님들을 친어머니, 만누이의 손길로 반가이 맞이하고 소박한 식사라도 늘 성의껏 대접하셨다. 녀사께서는 나의 시누이들이 외국에 류학할 때에는 철에 따르는 것

바로 이러한 때에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현시기 동포대중을 전취하여 묶어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야 하며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묶어세우는것은 총련의 중요한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재일동포상공인은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

## 상공인들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시어

가르치신바와 같이 재일동포 상공인들은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이라고, 이제는 총련이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떠나서 동포대중과의 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전진시킬수 없다고, 동포상공인들은 총련사업의 주되는 대상으로 되어

동의 주력군이라는 이 정의는 총련대오의 역량편성에서 울린 하나의 퇴성이였으며 그것은 새로운 거창한 의미로 일군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일본당국의 흑심한 민족차별정책이 강요되는 땅에서 자기의 책임을 들어 한푼두푼 눈물어린 돈을 모으고있는

세우며 그들과의 사업에 1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는것이였다.

참으로 이것이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은 현시기 해외교포운동에서 강령적의를 가지는 탁월한 방침으로서 해외교포운동사상사에서 빛나는 기념비로 되었다.

본사기자

# 백두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

보인다고 말한다. 굽어보며 사람들은 삼천리가 보이고 통일이 백두산에 올라 무척 쉽게 뻗어나간 산줄기들을 감지되어있는 민족의 성산이다. 백두산은 우리 겨레 누누나의 마음속에 깊이

## 민족의 자주기상이 어려

사시장철 머리에 흰눈을 이고있다고 하여 이름도 백두산이라 불리우는 민족의 성산은 아득히 먼 지질시대에 형성되어 오랜 세월 각이한 자연현상에 의하여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산악미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우러러왔다. 고구려 중엽에 벌써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전해져왔다는 사실은 백두산이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명산중의 명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백두산은 낮에도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우는 등 신비한 자연경관으로 하여 오늘날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세월의 모진 비바람속에서도 굳건히 솟아있는 백두산처럼 우리 겨레는 역사의 수많은 곡절속에서도 자기의 민족성과 민족 전통을 지켜왔다. 외세의 침략으로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그 세월속에서도 민족의 정기가 어릴 백두산을 마음의 기

등으로 삼고 반일독립투쟁의 기치를 든 우리 겨레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백두산을 가리켜 백의민족의 기상과 넋이 살아숨쉬는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면서 백두산이야말로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조선민족의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산이라고 하고있다. 민족의 역설 자주기상이 어려있어 이곳에 오르면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을 단호히 갈장명겨려의 의지를 더욱 느낄수 있다.

## 삼천리를 품에 안고 백두산

백두산마루에서 시작되어 저 멀리 조선반도남부까지 뻗어간 백두대산 줄기는 우리 나라를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놓는 거대한 산줄기이다. 백두산에 오르면 수없이 솟은 이 나라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한눈에 보이고 동해와 서해의 푸른 물결이 금시라도 안겨오는 것만 같다. 백두산의 젖줄기를 마시고 솟은듯 백두대산줄기를 따라 솟아난 조국의 산과 봉우리들을 바라보노라면 내 조

국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의 강도, 돌로 갈라질수 없는 겨레의 땅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백두도 내 조국 한나도 내 조국이라고 하며 저저마다 백두산정에 올라 저 멀리 한나를 찾고 부르고 통일을 웨치고있는것 아닌가. 삼천리의 지맥이 하나로 이어졌듯이 우리 조국도 하나이다. 그래서 백두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고 한다.

## 대양의 빛깔 우리를 비치어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신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다. 월전만리, 눈보라만리의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백두산 일대에서 조국방 방방포곡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애국렬사들을 만나주시였으며 이곳에서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도 구상하시였다. 백두산은 또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력사의 고장이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의 념원이었던 조국통일을 이룩하실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무르익힌 통일이 큰 작전과 구상을 실천하여 6.15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백두산을 사랑하시고 여기에 자주 오르시어 백두의 땀뺀 칼바람도 맞으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치신다. 태양의 빛깔이 삼천리를 비치어 더욱더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다. 그 성산에 오르면 통일이 보인다.

본사기자 강류성



북, 남, 해외작가들 백두산정에서 《통일문학의 새벽》모임 진행 (2015년 7월)

## 통일을 불러

### 목사가 안긴 복락의 세계 (1)

통일이여국의 길에서 생을 빛 내인 애국인사들가운데는 그리스도교신자였던 김창준목사도 있다. 김창준목사는 조선에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실현된 《지상천국》을 세워보려는 념원을 간직하고 일찌기 국내와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한 오랜 종교인이었다. 1890년 5월 평안도 강서군(당시)의 어느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그의 부모도 아들을 공부시키기를 하나의 락으로 삼고 그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아끼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부패한 봉건통치로 기어올라가는 나라의 운명은 그들의 가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자기 가정의 몰락과 함께 나라의 쇠퇴과정을 함께 보아온 그는 민족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전문을 넓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소학교 파정안을 단 1년만에 끝마치고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끌려들게 된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미국선교사들이 날마다 설교하는 그리스도교 교리에 심취되어가면서 그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수 있는 길이 아

닐가 하고 생각하곤 하였다. 하여 그는 독실한 교인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때를 회상하여 김창준목사는 《...나는 숭실중학과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던 고학 시절에 시양선교사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우리 조선학생들보다 나은 음식을 먹는것을 보고 고작 생각하였다는것이 이러한 사회적불평등은 (지상천국)이 와야 없어진다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그가 1912년 6월에 평양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광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박사가 된것을 《지상천국》을 반드시 이룩해보자는 열망때문이였다. 비록 바다 건너 먼 남의 나라 땅에서 종교활동을 벌일 때에도 그의 가슴속에서는 조선사람의 피가 끓고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애절한 향수가 흘러넘쳤다. 그가 바라는것은 자기 민족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종교인으로 되는것이었던것이다. 그의 이러한 념원은 그가 조선에 돌아와 종교중앙교회 목사로, 후에는 중국

상해에 있는 그리스도교 아시아총회의 조선그리스도교 감리회 대표로 활약한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는 자기의 종교적리념을 이룩하려고 피라게 노력하였다. 허나 나라없는 백성에게 차려지는 천대와 멸시, 설움과 울분은 종교인이라고 예외지 않았다.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그는 종교적리념은 고사하고 민족의 한성원으로로서 초보적권리와 존엄마저 무참히 빼앗겼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항상 조선을 구원해줄것을 간절히 기원하였고 교인들에게 예국의 넋을 심어주려고 여러모로 애썼지만 백의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이 모든것은 그의 반일감정을 더해주었고 1919년 3.1인민봉기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중의 한사람으로 반일투쟁의 전열에 나서도록 추동하는 힘으로 되었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3년간의 옥고를 치

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목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것은 어찌서 우리 민족은 이다지도 힘이 없는 민족인가에 대한 생각, 남에게 짓밟히고 천대받고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다가 끝끝내 사멸되어야 하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숙명이라는 생각, 어찌서 저 하늘에서 인간세계의 모든 만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우리 민족을 굽어살피지 않는것인가 하는 생각이였다.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도 그는 선교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하느님》을 받드는 자기의 지성이 모자라도 한듯이, 그러나 그가 아무리 지성을 기울여도 조선사람들을 이해하였고 1919년 3.1인민봉기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중의 한사람으로 반일투쟁의 전열에 나서도록 추동하는 힘으로 되었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3년간의 옥고를 치



김창준목사

종교인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멸시는 김창준목사에게 종교가 있기 전에 먼저 제나라가 있어야 한다는것, 민족의 운명이자 종교인의 운명이라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었다. 그후 미국의 시카고로 유학을 간 목사는 거기서 국민회 홍사단과 동지회, 전미조선유학생회를 총관리하였으며 미국전역의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선전활동도 벌여왔다. 1927년 12월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목사는 조국애와 세계평화를 고취하기 위한 종교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랜 세월이 흘러 김창준목사는 보전보전투소식에 접하고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연설내용을 전해듣고 그이에 대한 커다란 경모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이날부터 그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기도를 드려드림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를 바라며 기도도 드렸고 만나는 사람마다 백두산을 우리르며 살아야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참으로 백두산소식은 김창준목사가 가족한 일제의 탄압밑에서도 민족적지조를 잃지 않고 조선사람의 망심을 지켜 갖기 살아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 3자회담을 열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1980년대에 조선반도에서 통일로선과 분별로선, 평화정책과 전쟁정책간의 대결을 더욱 첨예화하였다. 미국은 각종 핵무기와 핵운반수단들이 배비되어있는 남조선에 증성자판까지 배치하려고 서둘렀다. 또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자기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남조선군과 함께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더욱 빈번히 벌여왔다. 내외어른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될것이며 이 전쟁은 침사리 조선반도경외로 확대되어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인류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을것이라는 위구를 표시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 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

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공화국정부는 3자회담제안은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를 통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토의하고 공화국과 미국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시켜 3자회담을 진행하며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의하였다. 연합회의는 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가 마련된 다음 조국통일3대원칙에 맞게 통일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84년 1월 25일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체결할데 대하여》를 심의하고 조미사이에 회담

남조선에서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3주년을 맞으며 《남북간합의사합리행》, 《한반도평화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운운하는 당국에 대한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는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3주년을 맞으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정부부터 정적전환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

## 췌버린 약속, 높아가는 비판의 목소리

라고 하면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지 3년, 력사적인 합의는 사라지고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대결로 치달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정신이야말로 남북이 평화와

변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자 정도임을 다시 강조하며 정부의 사고전환과 실천을 다시 호소한다.》라고 토로하였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는 8.15해방의 날을 맞으며 여러 정당, 단체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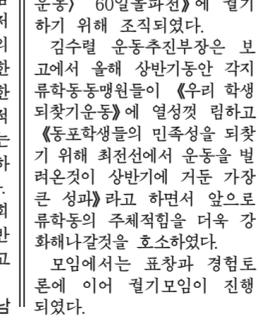
《정부는 이제 임기 반년을 채 남기지 않았다.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 평양공동선언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더 큰 불신이나 자라나듯 단지 남북관계의 중단이 아니라 대결관계로 회귀하고 있다.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 정부는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편 남조선언론 《민력리》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략방향은 한반도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통일의 길을 여는것이다.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대북적대정책철회다. 문제는 한미가 이를 리행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적대정책철회, 신뢰회복의 귀결점은 한반도평화협정이다.》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박철남

## 민족적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

◆동포학생들이 애락을 느끼는 류학동이란》을 주제로 조별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결의토론이 있었다. ◆희생된 동포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간도대지진 조선인 학살 98돌 동포추도모임이 9월 11일 총련중앙인들과 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먼저 98년전 대지진당시 감행된 전대미문의 학살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동포희생자들을 추도하여 목상하였으며 추도사가 있었다. 추도사에 이어 공화국의 조선인간제련행위해해, 유가족협회에서 보내는 추도문이 소개되었다. 협회는 추도문에서 《눈도 감지 못하고 비명에 죽어간 희생자들의 원한은 일본당국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하여 성실한 자제와 립장에서 망심적으로 청산하며 반공화국, 반총련정책을 버리고 재일조선인들을 바로 대할 때에야 비로소 풀리게 되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에서 전제

모임에서는 《동포학생들이 애락을 느끼는 류학동이란》을 주제로 조별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결의토론이 있었다. ◆희생된 동포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간도대지진 조선인 학살 98돌 동포추도모임이 9월 11일 총련중앙인들과 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먼저 98년전 대지진당시 감행된 전대미문의 학살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동포희생자들을 추도하여 목상하였으며 추도사가 있었다. 추도사에 이어 공화국의 조선인간제련행위해해, 유가족협회에서 보내는 추도문이 소개되었다. 협회는 추도문에서 《눈도 감지 못하고 비명에 죽어간 희생자들의 원한은 일본당국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하여 성실한 자제와 립장에서 망심적으로 청산하며 반공화국, 반총련정책을 버리고 재일조선인들을 바로 대할 때에야 비로소 풀리게 되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에서 전제

추도하여 목상하였으며 추도사가 있었다. 추도사에 이어 공화국의 조선인간제련행위해해, 유가족협회에서 보내는 추도문이 소개되었다. 협회는 추도문에서 《눈도 감지 못하고 비명에 죽어간 희생자들의 원한은 일본당국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하여 성실한 자제와 립장에서 망심적으로 청산하며 반공화국, 반총련정책을 버리고 재일조선인들을 바로 대할 때에야 비로소 풀리게 되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에서 전제



김원



# 심화되는 갈등과 차별, 넘쳐나는 사랑과 정

지금 남조선에서 《젠더갈등》(남녀갈등)이란 말이 유행되고있다. 지난 시기 인터넷에서 흥미분위로 서로를 비방하는것으로 그쳤던 남녀간의 갈등이 오늘날에는 대학과 기업, 체육과 문화계 지어 정계 등 사회 각계로 확대되고있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도교을림피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여자활쏘기선수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하여 남침범이 그 선수를 《남성혐오주의자》로 몰아내고 성상들은 그대로 부당한 성차별행위라고 반발해나섰다. 그것을 보니 남조선사회에

참으로 갈등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갈등, 리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사회갈등, 경제갈등... 나중엔 이웃들간 소송때문에 다투는 증간소음갈등도 있다.

하다면 왜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겠는가.

현재 남조선에서 20, 30대 청년들은 가혹한 생존경쟁과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차별, 취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 각종 차별속에서 성장해나다니 소용과 협력, 남에 대한 배려보다 극단한 개인주의 성향을 추구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청년들이 인터넷사이드들에 만연하는 남녀차별과

혐오사상을 수시로 접하고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분야에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차례지는것을 보면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가중시키고있다.

하여 남녀청년들이 《한남충》(남조선남자들은 별래와 같다는 뜻), 《김치녀》(남자에게 기생하는 여자), 《메미니스트》(남성우월주의자), 《마초》(남성우월주의자) 등으로 서로 헐뜯다 못해 인터넷에서 집단적으로 인신공격에 나서거나 하면 살인, 성폭력 등 각종 범죄까지 저지르고있다고 한다.

국도의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 기초한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는 남조선사회에 대한 환멸이 커갈수록,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말에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화국의 현실이 더욱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다.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보아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자기보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는 마음이 차고넘친다. 평양시의학대학에 다니는



평양시의학대학에 다니는 18살 남 치녀대학생 박우인 (가운데)

18살 남 치녀대학생 박우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앓은병이로 바깥출입을 못하던 그였다.

《어서 업혀라. 학교에 가자.》

지금으로부터 11년전, 우인에 대한 말을 듣고 그를 찾아온 한 녀교원의 정겨운 목소리였다.

그때부터 계산마을에서 소학교로 뺀은 소로길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우인이를 업은 녀교원의 발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그가 바로 형제산구역 제산소학교 함옥숙교원이었다.

우인에게 열정을 주는 법으로부터 우리 글읽기와 셈계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의 성적이 오를 때면 누구보다 기뻐하던 녀교원, 수업휴식시간이면 그의 다리를 자기 무릎위에 올려놓고 주물러주기도 하고 영양식품도 성의껏 만들어주곤 하였다.

수년세월 한 학생을 위해

#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사람들 누구나 《사회주의 우리 집》이라고 정답이 부르는 이 땅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아름답고 따뜻한 곳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평양전기기술대학의 서화학생이 쓴 수기를 통하여 찾게 된다.

\* \* \*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내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몇몇전에는 아버지마저 잃고보니 복받치는 슬픔을 누를길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의롭지 않았다.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내가 살고있는 평천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은 김정은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친부모의 정으로 나의 학습과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고있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 우리 성화를 잘 배워달라고, 이것은 성화의 학부형으로서 하는 부모타락이 절절한 당부를 남겼다가 하면 내가 대학입학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던 때에는 밤늦도록 학습지도도 해주고 대학에 입

학했을 때에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준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아저씨, 그들을 나는 위원장아버지, 부위원장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르며 마른다.

《아버지라고? 그래그래, 너의 고운 얼굴에서 시름을 가세우는 아버지가 되어주마.》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을 때 나를 꼭 껴안고 속삭이던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의 목소리가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공부도 잘 배워주고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나에게 먼저 안겨주던 고급중학교 선생님, 설명절과 명절날마다 나를 자주 찾아오곤 하는 동사무소 일꾼들, 우리 집을 위해 큰일, 작은 일 도맡아 나서는 다양한 이웃들... 꼭 친어머니, 친아버지같은 그들 모두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하나같았다.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라.》

두해전 어느날,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나는 뜻밖에도 담임교원으로부러 평천구역

인산2동 80인민반 5층 3호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영문도 모르고 그곳을 찾아가니 정갈한 방 안에서 할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할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있는것이 아닌가.

《글세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이... 이렇게 새 집을 멋들어지게 꾸려주고 이사집까지 달라주었구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머니의 목메인 이야기를 듣는 나의 눈가에서는 걱정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은 함께 살던 할머니도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친부모에 비길수 없는 따뜻한 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부여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참으로 많고많은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고 모두가 한가정, 친형제로 사는 화목한 대가정, 서로 돕고 위하는 따뜻한 사랑이 풍기처럼 흐르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상에 제일이라고.



성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중요한 가을을 맞이한 조국의 전야

공화국의 전야가 깊고있다.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자신들이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자각한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기후조건과 어려움을속에서도 올해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농업성의 한 일꾼은 《은나라의 강력한 지원밑에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알곡증산을 위한 활기를 띠고있는 조국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이것이 그대로 좋은 결실로 이어지거나 마는가는 우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평안북도 룡천군, 염주군, 신의주시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열의밑에 벼가을걷이전까지 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있다.

룡천군에서는 자기 군의 농사는 전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진다는 관철밑에 천알당 질량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비배관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하도록 사업을 짜고 들고있다.

석하, 토성형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도 가을걷이와 낱알탈기를 제때에 해제낄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는데 만족하지 않고 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논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이에 맞게 도농업과학연구소들에서도 가을걷이전까지 알곡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들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해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있다.

한편 각지의 농촌들에서 강병이를 익는 족족 거두어들이기 위해 강병이가을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연백별, 제병별의 농업근로자들은 낱알, 포진별로 가을걷이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며 기초적으로 작업반,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서해지구의 농촌들에서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땅을 털어 가운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일수 있게 로력과 기계수단보장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사외의견에서—

문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꽃을 사랑하며 소중히 키워왔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의 정서생활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화초가꾸기이다.

꽃은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품만한 정서를 안겨준다. 꽃밭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키우며 널리 보급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속에 가정들에서도 갖가지 화초를 심어 풍만하면서도 정서적인 생활을 마련하고있다.

꽃집으로 널리 알려진 대성

구역 고산동에서 살고있는 리진호의 가정에서는 수백그루의 식물들을 가꾸고있는데 이것은 온 가정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되고있다.

활엽수종과 침엽수종, 꽃관목들을 배치한것을 보느라니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원림특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원림특화라고 하면 공원, 유원지에처처럼 넓은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원림특화를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 고있었다.

이곳에서 기자와 만난 리진호는 집드락을 온갖 꽃 만발하고 목을우겨진 정원으로 만들고싶었다고, 그래서 오랜전부터 관상적가지가 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집들 안에 옮겨심고 돌보며 관리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집들안에서 자라는 나무들중에서 독특하게 비들어서 공예품과같이 보이는 참대버드나무를 보느라니 참으로 신중한 느낌이 들었다.

리진호는 2년전부터 참대버드나무를 꽃병모양으로 가꾸고있는데 나무줄기가 유연하고 결가지가 뾰지 않기때문

리진호의 아버지도 식물을 남달리 사랑했다고 한다. 원림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공장에도 심고 집들안에도 많이 심어 그윽한 꽃향기가 차 넘치게 했다는것이였다.

수십년전에 아버지가 심었다는 나무의 가지다듬기를 해주면서 그는 나무를 심은 다음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지다듬기를 해주면 나무의 개체적인 미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당장가지 치기를 친 장장미들도 10여년세월 정성들여 모양을 가꾸어 줄어 오를처럼 활짝 핀 장미꽃풍경을 펼쳐졌다고 한다.

하나의 식물들을 심고 자라게 하려면 그와 모양에 있어서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게 가꾸는 것이 그의 식물가꾸기에서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수 있었다.



본재가꾸기는 시이고 노래이며 예술

하면서 공예사와 같은 높은 기능을 소유하고있었다. 인민대학총당과 과학기술전당을 부지런히 오가며 《화초재배》, 《분재와 분경만들기》를 비롯한 수많은 도서와 자료들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식물을 가꾸기 위해 애쓰고있는 그였다. 관상적가지가 있는 식물들

화분에 심은 다음 조형예술적으로 가공하여 오래된 나무나 식물처럼 느껴지도록 자라게 하는것이 분재이다. 분재는 관상적가지가 클뿐 아니라 다채로운 형태와 색깔로 우아하고 청신한 환경을 마련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분재가꾸기는 나무의 자연적인 모양을 그대로 살려야 관상적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 그가 터득한 경험이다.

15년정도 자랐다는 소나무 분재를 가꾸면서 그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의 역센 기상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센순군한다고, 한그루의 소나무가 분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산속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나이

먹은 소나무를 떠다 화분에 새겨놓으면 몇해사이에 얼마든지 소나무분재를 만들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분재가꾸기는 시이고 노래이며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식물들 화분에 심었다고 절로 분재로 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분재가꾸기는 나무의 자연적인 모양을 그대로 살려야 관상적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 그가 터득한 경험이다.

15년정도 자랐다는 소나무 분재를 가꾸면서 그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의 역센 기상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센순군한다고, 한그루의 소나무가 분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산속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나이

분재가꾸기는 시이고 노래이며 예술

하면서 공예사와 같은 높은 기능을 소유하고있었다. 인민대학총당과 과학기술전당을 부지런히 오가며 《화초재배》, 《분재와 분경만들기》를 비롯한 수많은 도서와 자료들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식물을 가꾸기 위해 애쓰고있는 그였다. 관상적가지가 있는 식물들

화분에 심은 다음 조형예술적으로 가공하여 오래된 나무나 식물처럼 느껴지도록 자라게 하는것이 분재이다. 분재는 관상적가지가 클뿐 아니라 다채로운 형태와 색깔로 우아하고 청신한 환경을 마련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분재가꾸기는 나무의 자연적인 모양을 그대로 살려야 관상적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 그가 터득한 경험이다.

15년정도 자랐다는 소나무 분재를 가꾸면서 그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의 역센 기상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센순군한다고, 한그루의 소나무가 분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산속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나이

먹은 소나무를 떠다 화분에 새겨놓으면 몇해사이에 얼마든지 소나무분재를 만들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분재가꾸기는 시이고 노래이며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식물들 화분에 심었다고 절로 분재로 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분재가꾸기는 나무의 자연적인 모양을 그대로 살려야 관상적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 그가 터득한 경험이다.

15년정도 자랐다는 소나무 분재를 가꾸면서 그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의 역센 기상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센순군한다고, 한그루의 소나무가 분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산속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나이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꽃을 가꾸기보다 꽃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서 꽃과 나무가 잘 지라는것을 볼 때면 힘이 솟고 꽃처럼 생활을 아름답게 꾸러갈 결심이 굳어진다.

그런 마음들이 흐르는 가정의 분위기는 언제나 밝고 생기발랄하다는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리진호는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은 자기 집들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향토애, 조국애를 소중히 간직하고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어 우리 사는 집과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꾸러가겠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마음이 자랑만이 되어서인가 활짝 피어 웃는 집들안의 꽃송이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이렇듯 품만한 정서를 안겨주는 화초가꾸기와 더불어 애국의 향기, 행복의 향기가 차 넘치는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흥복식

##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뜨락

마을사람들 누구나 《꽃집》이라고 부르는 리진호가정을 찾는것은 어렵지 않았다. 담장에 출렁이던꽃이 우거진 고산동 47인민반의 아담한 단층살림집에 들어서면 기자는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이 우거진 풍치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다양한 종류의 화초들, 봄이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 사계절 관상적효과를 주는 단풍나무분재...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와 활짝 핀 꽃들, 자연미가 나뉠수 있는 울바자며 바닥에 깔색블록들에도 집주인의 정성이 깃들여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여기에 금잉어들이 노니는 작은 못과 인공폭포까지 있어 집드락이리보다 잘 꾸러진 정원을 방불케 했다. 기자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크지 않은 뜨락을 둘러 보았다.

경관적가치를 자아낼수 있게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뜨락

마을사람들 누구나 《꽃집》이라고 부르는 리진호가정을 찾는것은 어렵지 않았다. 담장에 출렁이던꽃이 우거진 고산동 47인민반의 아담한 단층살림집에 들어서면 기자는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이 우거진 풍치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다양한 종류의 화초들, 봄이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 사계절 관상적효과를 주는 단풍나무분재...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와 활짝 핀 꽃들, 자연미가 나뉠수 있는 울바자며 바닥에 깔색블록들에도 집주인의 정성이 깃들여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여기에 금잉어들이 노니는 작은 못과 인공폭포까지 있어 집드락이리보다 잘 꾸러진 정원을 방불케 했다. 기자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크지 않은 뜨락을 둘러 보았다.

경관적가치를 자아낼수 있게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뜨락

마을사람들 누구나 《꽃집》이라고 부르는 리진호가정을 찾는것은 어렵지 않았다. 담장에 출렁이던꽃이 우거진 고산동 47인민반의 아담한 단층살림집에 들어서면 기자는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이 우거진 풍치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다양한 종류의 화초들, 봄이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 사계절 관상적효과를 주는 단풍나무분재...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와 활짝 핀 꽃들, 자연미가 나뉠수 있는 울바자며 바닥에 깔색블록들에도 집주인의 정성이 깃들여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여기에 금잉어들이 노니는 작은 못과 인공폭포까지 있어 집드락이리보다 잘 꾸러진 정원을 방불케 했다. 기자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크지 않은 뜨락을 둘러 보았다.

경관적가치를 자아낼수 있게

분재가꾸기는 시이고 노래이며 예술

하면서 공예사와 같은 높은 기능을 소유하고있었다. 인민대학총당과 과학기술전당을 부지런히 오가며 《화초재배》, 《분재와 분경만들기》를 비롯한 수많은 도서와 자료들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식물을 가꾸기 위해 애쓰고있는 그였다. 관상적가지가 있는 식물들

화분에 심은 다음 조형예술적으로 가공하여 오래된 나무나 식물처럼 느껴지도록 자라게 하는것이 분재이다. 분재는 관상적가지가 클뿐 아니라 다채로운 형태와 색깔로 우아하고 청신한 환경을 마련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분재가꾸기는 나무의 자연적인 모양을 그대로 살려야 관상적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 그가 터득한 경험이다.

15년정도 자랐다는 소나무 분재를 가꾸면서 그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의 역센 기상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센순군한다고, 한그루의 소나무가 분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산속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나이



